

「大藏目錄」의 體系

— 高麗大藏經 初雕分을 中心으로 —

鄭 秘 謨*

〈 目 次 〉

緒 論

- I. 再雕目錄과 初雕目錄
- II. 大藏經板의 排列體系
- III. 大藏經의 分類體系
 - A. 「開元釋教錄」과의 對比分析
 - B. 社函—經函의 經典과 契丹本
 - C. 「續開元釋教錄」과의 對比分析
- IV. 書誌의 記述法

結 論

緒 論

高麗大藏經雕造의 時期와 經緯 및 그 特性 등에 관해서는 최근까지 金斗鍾¹⁾, 千惠鳳²⁾ 兩教授를 비롯해서 많은 先行研究³⁾에 의해서 거의 그 윤곽이 밝혀졌다. 그러나 高麗大藏經 전반에 걸친 內容을 著錄한 「大藏目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本稿는 高麗大藏經(影印本)에 수록된 再雕時의 「大藏目錄」과 이에 관련된 「開元釋教錄」, 「續開元釋教錄」, 「貞元新定釋教目錄」, 「續貞元釋教錄」, 「高麗新雕大藏校正別錄」 등의 資料를 실제로 對比分析하여 初雕의 「大藏目錄」의 分類 및 排列體系와 그 底本關係 및 書誌의 記述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 1)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外論文數篇.
- 2)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外論文數篇.
- 3) 趙明基. 國寶高麗大藏經의 價値. 東國大學校論文集, 1958, 外論文數篇.

I. 再雕目錄과 初雕目錄.

高麗의 顯宗 및 文宗朝에 完成된 初雕大藏經板은 高麗 高宗 9年 (1232)에 蒙古兵에 의해서 燒盡되었고, 그 印本마저도 散失되어 다만 극히 一部分만이 散在해 있을 뿐이다. 그러나 不幸中多幸히도 高宗年間に 다시 雕造된 再雕大藏經板이 海印寺에 온전히 保存되어 있고 최근에 그 影印本 全帙이 出刊되었다.

初雕의 高麗大藏目錄은 현재까지 그대로 傳承되지는 않고 있으나 高宗朝의 再雕大藏經은 初雕大藏經의 印本을 守其 등이 校勘하여 “內容上의 誤錯를 訂正하고 脫漏를 補修”⁴⁾ 하고 그간에 導入된 經典을 追加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初雕大藏經과 그 目錄의 大要를 파악할 수 있다.

海印寺의 大藏經板의 更函 또는 「高麗大藏經」 影印本에는 再雕時의 大藏目錄이 수록되어 있고,⁵⁾ 再雕編纂時에 校勘한 內容을 記錄한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三十卷」⁶⁾ 이나 唐의 開元 18年 (A.D. 730)에 智昇이 撰한 「開元釋教錄二十卷」,⁷⁾ 唐 貞元 10年 (A.D. 794)에 圓照가 撰한 「續開元釋教錄三卷」,⁸⁾ 唐 貞元 16年 (A.D. 800)에 圓照가 撰한 「貞元新定釋教目錄三十卷」,⁹⁾ 南唐 保大 2年 (A.D. 945)에 恒安이 撰한 「續貞元釋教錄一卷」¹⁰⁾ 등 중요한 歷代의 佛經目錄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들중 「大藏目錄」은 그 末尾에 “戊申年 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고 그 刊記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再雕의 「大藏目錄」이다.

그러나 이 再雕의 「大藏目錄」中 天函부 更函까지 571函分은 再雕時에 守其 등이 初雕의 大藏目錄을 校勘하여 다만 部分的으로 修訂을

4)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p. 81.

5)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6年完刊, v. 39, pp. 173-2.

6) *Ibid.* v. 38, pp. 512 ~ 725

7) *Ibid.* v. 38, pp. 965 ~ 1277

8) *Ibid.* v. 38, pp. 1 ~ 36

9) *Ibid.* v. 38, pp. 70 ~ 511

10) *Ibid.* v. 38, pp. 37 ~ 47

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記錄은 아직 發見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첫째 「校正別錄」을 보면, 이 再雕의 「大藏目錄」은 初雕의 「大藏目錄」과 「開元釋教錄」을 기초로 하여 校正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주로 千惠鳳교수가 實查 鑑定한 初雕大藏經 印本에 매겨진 函次와 經典名이 현재의 再雕大藏目錄에 매겨진 函次와 一致한다는 점이다.

우선 첫째의 실예를 들면; ① 「校正別錄」에서 才函條에 “國宋二藏(高麗初雕大藏經과 宋開元藏)은 이 才函가운데 또 六字神呪王經이 있다”¹¹⁾ (現存의 再雕大藏目錄에는 「六字神呪王經」流志譯本 하나만 있는데)고 하였고, ② 澄函條에 “起世經十卷; 國本(舊大藏經)과 宋本에서는 起世經 闍那崛多共達摩笈多等譯이라 했는데 丹藏에서는 闍那崛多譯이라고 했다.”¹²⁾ ③ 取函條에 “起世因本經十卷」國本 宋本에서는 起世因本經 闍那崛多譯이라고 했는데 丹藏에서는 達摩笈多譯이라고 했다. 이제 開元錄을 검토해 보면 起世經은 闍那崛多譯으로 하여 前經으로 삼고, 起世因本經은 達摩笈多譯으로 하여 後經으로 삼았는데(原經의) 經名은 前後經이 모두 같으나 譯者가 조금 다를 뿐이다.……(이제 前者는) 起世經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崛多譯으로 하여 앞의 澄函으로 삼고, (後者는) 題目에 “因本” 두자를 加하고 笈多譯으로 해서 取函으로 삼는다”¹³⁾ 고 했다. 이상의 2函의 경우는 舊大藏目錄에서의 譯者名을 訂正한 예이다. ④ 容函條에서는 “이제 開元錄을 살펴본즉 (現)大藏目錄가운데 「容函」 속에는 受歲經竺法護譯本과 中阿舍經第 23 卷은 重譯인데 初頭는 同本同譯이다. 單譯은 (現)大藏目錄中の 竟函內에 있는 佛說新歲經竺曇無蘭譯인데 晉本에는 法正譯이라고 한다. …… 이제 丹本을 살펴본즉 受歲經과 中舍二十三卷은 대체로 같으므로 이것이 同本同譯이다. 실제로 맞는 것은 容函의 重譯受歲經뿐이다. 宋本의 受新歲經과 中舍二十三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竟

11)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6, v, 38, p.530 (才函; 國宋二藏比才函中更有六字神呪王經)

12) *Ibid*, v, 38, p.631 (國宋藏云起世經闍那崛多共達摩笈多譯丹藏則云闍那崛多譯)

13) *Loc. cit.*

函의 新歲經은 文義는 비록 다른데가 있으나 大旨는 별로 버서난데가 없으니 그 經의 異譯인듯 하다. … 受新歲經은 竟函으로 옮기고 이 容函중에 있는 이 丹藏의 經을 眞本으로 삼는다”¹⁴⁾ 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現大藏目錄의 竟函에 있는 佛說受新歲經一卷(法護譯)이 舊大藏目錄에는 容函에 있었던 것을 再雕時에 竟函으로 옮기고 容函에는 丹本을 새로 編入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竟函條에서 “이 受新歲經을 살펴보면 法護譯은 國本(舊大藏經) 宋本(宋開元錄) 모두 受歲經으로써 容函중에 編入되어 있다. 丹藏인즉 容函중에 있는 受歲經이라는 經名은 이 經(受新歲經)과는 大別하다. 이제 開元錄에 의거하여 이를 檢討한 바 丹藏의 正經은 (現)容函의 受歲經이다. 이 宋藏經과 이 (現)竟函의 新歲經은 文章은 다르나 大義는 같으니 同本異譯인듯하다. 開元錄中에서는 新歲經으로써 單譯으로 삼았으니 …이 經을 竟函으로 옮기어 編入시킨다”¹⁵⁾ 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앞의 容函에서 新歲經이 竟函으로 옮긴 사실을 竟函에서도 되풀이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다. ⑥ 孰函條에서 “이 函의 國本(舊大藏經) 宋本(宋開元錄)中에는 「佛說木槌經」 不空譯이 있다. 이제 檢討해 보니 (이 經은) 앞은 竟函에 있는 「木槌子經」 失譯人名今附東晉錄과 더불어 始終 다른 것이 없고, 그 文體도 같은즉 이것은 漢晉의 譯으로서 竟函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이 函中에 있는 것을 除去하고 후에 佛說木槌經과 저 竟函의 經이 다른 것이 發見되면 이 孰函중에 編入시키고자 한다”¹⁶⁾ 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舊)大藏目錄에는 孰函中

14) *Ibid.*, v. 38, p. 634 (今按開元錄重譯錄中容函之內有受歲經竺法護譯云與中阿舍經第二十三卷初同本異譯單譯錄中竟函之內有新歲經竺曇無蘭晉云法正譯…今檢丹受歲經與彼中含二十三卷大同則真是容函重譯受歲經耳宋本受新歲經與彼中含全別而與竟函名新歲經者在文雖異大旨無殊似是彼經之異譯耳…故移受新歲經編于竟函此容函中取此丹藏經爲眞本焉)

15) *Ibid.*, v. 38, p. 647 (國本宋本皆編於容函中以當受歲經丹藏則容函中有名受歲經者而與此經大別今依開元錄檢之則丹藏之經正是容函受歲經耳此宋藏經與此竟函新歲經文異義同似是同本異譯耳則開元錄中以新歲經爲單譯者…故以此經移編于竟函焉)

16) *Ibid.*, v. 38, p. 721(孰函:此函國宋本中有佛說木槌經不空譯者今檢與前竟函木槌子經失譯人名今附東晉錄者始終無異詳其文體即是漢晉之譯其在竟函者然矣…故今除却此函中者後賢若見佛說木槌經與彼竟函之經異者請須編次孰函申焉)

에 「佛說木槵經」이 있었으나 (現)大藏目錄에서는 除去된 것이다.

⑦廻函條; “右二函中國本(舊大藏經)에 있는 佛名經十八卷”은 이제 검토해보니 아래의 「寧晉楚函」中에 있는 三十卷本과 같다. 이一經은 後世사람들이 그 卷數가 다름을 보고 異經으로 認定했기 때문에 2重으로 編入시킨 것이다. 이제 三十卷本이 世上에 盛行하므로 이 兩者중 에 18卷本을 除去하고 「摩訶衍論十卷」으로써 廻函으로 삼고, 「玄文論二十卷」으로써 漢函으로 삼았다.”¹⁷⁾ 다시 말하면 (舊)大藏目錄에는 廻漢函에 佛名經十八卷」이 수록되었으나 再雕時에 이를 除去하고 「摩訶衍論十卷」과 「玄文論二十卷」으로 代置한 것이다. ⑧俊父密函條; “이 3函中國本(舊大藏經)에 있는 「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은……이제 검토해보니 諸經卷中에서 藏經을 看覽하여 首尾에 있는 말을 採錄한 것으로 有益한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除去하고 이제 새로 撰한 校正別錄三十卷」으로써 그 函次를 變했다.”¹⁸⁾ 다시 말하면 (舊)大藏目錄의 俊父密函에는 「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再雕時에 이를 除去하고 「校正別錄三十卷」으로 代置한 것이다.

또한 「校正別錄」에 의거하면 舊大藏目錄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經典이 再雕時에 編入된 것이 6種이 있다. ①「校正別錄」의 鞞函條에 “「月燈三昧經一卷」宋沙門釋先公譯; 이것은 「丹藏月燈三昧經」先公譯인데 이것의 國本(舊大藏經) 宋本の 經과는 文義가 아주 달라서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다”¹⁹⁾ 고 하였다. 이에 이어서 校勘한 구체적인 內容과 그 正經을 具錄하고 있는데 筆者가 밝히고자 하는 要旨는 舊大藏目錄의 鞞函에 「月燈三昧經一卷」宋沙門釋先公譯의 經典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再雕時에 이와 동일한 經名과 譯者名으로 되어 있으면서 內容이 아주 다른 契丹本이 있어서 이를 追加編入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再雕大藏目錄에는 역시 같은 鞞函에 「月燈三昧經一卷」宋沙門釋先公譯 2種이 나란히 收錄되어 있는데 다만 丹本下에는 “一

17) *Ibid.* v. 38, p. 723, 724 (廻漢函; 右二函中國本有佛名經十八卷者今檢與下寧晉楚函中三十卷本同一經後人見其卷數有異認爲異經故重編入今以三十卷世所盛行故除此中十八卷者乃以摩訶衍論十卷爲廻函玄文論二十卷爲漢函云)

18) *Ibid.* v. 38, p. 724 (右三函中國本有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今檢但是標舉 諸經卷中首尾之言於看覽藏經者所益無幾今且除之以新撰校正別錄三十卷編其函焉)

19) *Ibid.* v. 38, p. 522 (次是丹藏月燈三昧經先公譯者而與彼國宋二藏之經文義迥異未知孰是)

名文殊師利菩薩十事行經」이라는 註記가 있다. ② 養函條; 「(佛說)彌勒下生成佛經」 義淨譯은 宋本에는 없고 丹本에는 있어서 이제 還收入藏한다. 開元錄을 살펴보니 彌勒下生經은 前後 6譯이 있는바 3譯은 남아 있고 3譯은 逸失했는데 이 丹本은 역시 남아있는 3譯中의 하나이다. 宋藏에 이 經典이 없는 것은 그것을 逸失한 것이다. 이제 丹藏에서 얻어서 이를 編入시킨다”²⁰⁾ 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彌勒下生成佛經」도 舊大藏目錄에는 없던 것을 再雕時에 契丹本에서 編入시킨 것이다. ③ 知函條; “最勝燈王如來經(丹本) 闍那崛多譯. 이 經의 이 譯本은 宋藏에서는 없어졌다. 이제 丹藏에서 얻어서 編入시킨다”²¹⁾ 여기에서 ‘宋藏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舊大藏經에도 수록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그 理由는 최초의 初雕 大藏經은 北宋의 大藏經을 거의 전부 導入하여 雕造했기 때문이다.(다음 제II章 참조). 그러므로 「最勝燈王如來經」도 舊大藏目錄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것을 再雕時에 새로 編入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詩函條; “蘇悉地(羯羅) 供養法三卷」 輸波迦羅唐言善無畏譯. 丹藏에서는 「蘇悉地羯羅經」이라고 하는데 經名도 대체로 不同하지만 文章역시 크게 다른데 譯者는 한사람이다. 이제 丹藏의 經을 살펴본즉 國本 宋本중에는 始終 모두 供養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제 目錄으로써는 비록 그 상세한 文義非是가 없으나 後世人이 譯(集)者를 거것으로 할까바 丹藏에 의거하여 兩者를 俱存한다.”²²⁾ 이상과 같이 이 經典도 역시 舊大藏目錄에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再雕時에 編入시켰음을 알 수 있다. ⑤ 命函의 「大乘法界無差別論一卷」은 (現) 大藏目錄에 “丹藏 賢首疏釋本”²³⁾ 이라고 註記가 있고 「校正別錄」에는 이 二藏(現大藏目錄에 同一經名の 2經이 수록되어 있음)은 이른바 法界無差別論 提雲般若譯이다. 이제 「開元

20) *Ibid.*, v. 38, p. 527 (養函; 彌勒下生成佛經義淨譯 宋無丹有今還收入藏. 按開元錄彌勒下生經前後六譯三存三失而此本亦在三存之一也則宋藏無此經者失之耳 今得於丹藏而編入之)

21) *Ibid.*, v. 38, p. 530, 531 (知函; 此經此本宋藏失之今得丹藏而編入)

22) *Ibid.*, v. 38, p. 537 (丹藏即云蘇悉地羯羅經名既不同文亦大異譯人一也 今檢丹藏之經國宋藏中始終皆無供養法者…今以目錄雖無詳其文義非是後人僞妄集者故依丹藏兩俱存焉)

23) 大藏目錄,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 1976, v. 39, p. 191(中)

錄」과 賢首疏를 살펴본즉 이의 丹本五言二十四頌이 眞本으로서 提雲般若가 譯하고 賢疏가 釋한 것이다. 이 法界無差別論은(舊)大藏目錄과 疏中에 모두 單譯으로 되어 있고 國宋兩本과 이 丹本과는 文章은 비록 다르나 大義는 다른데가 없으니 必是 開元錄以後의 後代에 重譯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누가 번역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이것은 校勘이 기대되며 二藏이 提雲般若의 譯이라고 하는 것은 錯誤이다”²⁴⁾ 라고 校勘記가 있다. 이러한 註記와 校勘記로 보아 이 經은 再雕時에 丹本에서 編入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⑥ 容函條; “「受歲經一卷」西晉三藏竺法護譯. 이 經의 丹藏은 經名이 受歲經이고 丹本에는 있으나 宋本에는 없다. 宋本の 經名은 受新歲經인데 宋本에는 있고 丹本에는 없다. … 그러므로 受新歲經을 竟函으로 옮기고 이 容函中에 丹藏의 經을 取하여 眞本으로 삼는다.”²⁵⁾ 이러한 校勘記로 보아 역시 受歲經은 再雕時에 丹本에서 編入시킨 것이다. 若函條; “舍衛國王十夢經一卷」安公失譯經今付西晉錄. 이 經을 살펴 보면… 이제 國宋二本은 文義가 서로 같은데 이 丹本과 宋本은 大義는 같으나 文章은 다르니 한사람의 譯은 아닌것 같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감히 除去하고 取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丹本이 詳悉하므로 이제 兩者를 모두 수록해서 賢哲을 기다린다.”²⁶⁾ 다시 말하면 舊大藏目錄에 宋本을 底本으로 한 國本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再雕時에 丹本을 編入시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大藏目錄에는 같은 若函內에 書名이 좀 다른 同本異譯의 2經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를 整理하면 아래와 같은 7經 9卷이 再雕時에 丹本에서 編入된 것이다.

24) *Op. cit.* v. 38, p. 614, 615 (容函; 此是二藏所謂法界無差別論提雲般若譯者今按開元錄及賢首疏則彼丹本五言二十四頌者眞是提雲般若所譯而賢首疏所釋者又此論錄及疏中並爲單譯而國宋兩本與彼丹本文雖有異義別無殊必是開元之後後代重譯也. 但未知何代何人之譯此須待勘而二藏直以此爲提雲般若之譯者錯也)

25) *Ibid.* v. 38, p. 634. (容函: “此經丹藏則名受歲經而丹有宋無宋藏則名受新歲經而宋有丹無… 故移受新歲經編于竟函此容函中取此丹藏經爲無本焉).

26) *Ibid.* v. 38, p. 638. (若函: 舍衛國王十夢經安公失譯經今付西晉錄, 按此經… 今國宋二本文義相同此丹本與宋義同文異似非一譯而未知是非不敢去取然此丹本詳悉今且雙存以待賢哲)

〈再雕時 丹本에서 編入된 經典〉

- (鞠) 「月燈三昧經一卷」 宋沙門釋先公譯
 (養) 「(佛說)彌勒下生成佛經一卷」 大唐三藏義淨譯
 (知) 「最勝燈王如來經一卷」 大隋北印度三藏闍那崛多譯
 (詩) 「蘇悉地供養法經三卷」 大唐中印度三藏善無畏譯
 (命) 「大乘法界無差別論一卷」 丹藏賢首疏釋本, 三藏提雲般若譯
 (容) 「受歲經一卷」 西晉三藏竺法護譯
 (若) 「舍衛國王十夢經一卷」 失譯人名丹本附西護譯

둘째의 실예를 들면; 다음의 書目은 1965 年에 千惠鳳교수가 日本의 南禪寺에 秘藏된 麗本을 실제로 확인한 初雕의 高麗經이다. 이 7 種 28 帖의 經典에 매겨진 函次와 著錄이 再雕 大藏目錄의 그것과 모두 일치한다.²⁷⁾

侍函	佛說佛名經 苦提流支譯 卷第 7 1 帖	p.184	※
邨函	舍利弗阿毘曇論 曇摩崛多·曇摩耶舍共譯 卷第 16~22 7 帖	p.200	
洛函	鞞婆沙論 迦旃延子造 僧伽跋燈譯 卷第 1~8 8 帖	p.200	
淨函	同 論 迦旃延子造 僧伽跋燈譯 卷第 9~10 2 帖	p.200	
車函	御製秘藏詮 宋太宗撰 卷第 1·6·7 3 帖	p.208	
鷲函	同 詮 宋太宗撰 卷第 13 1 帖	p.208	
經函	御製逍遙詠 宋太宗撰 卷第 10 1 帖	p.208	
佐函	菩提揚所說一字頂輪王經 不空譯 卷第 1·2·4·5 4 帖	p.209	
漢函	佛名經 失譯 卷第 10 1 帖	p.212	

또한 千교수가 海印寺 東·西齊의 寺刊板과 全國의인 規模로 公·私 秘藏을 實査하고 鑑定한 다음과 같은 初雕本大藏經이 再雕의 「大藏目錄」에 매겨진 函次와 著錄이 하나도 例外없이 일치한다.²⁸⁾

27)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73 참조.

28) *Ibid.* p.74~76 참조.

※ 大藏目錄(高麗大藏經. 卷 39)에 수록된 面數임. 以下同

閔函	大般若波羅蜜多經 玄奘奉詔譯	卷第 249	1 卷	p. 174
雨函	同 經 玄奘奉詔譯	卷第 355	1 卷	p. 174
劔函	同 經 玄奘奉詔譯	卷第 481	1 卷	p. 174
薑函	摩訶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譯	卷第 16	1 卷	p. 174
海函	同 經 鳩摩羅什譯	卷第 24	1 卷	p. 174
河函	摩訶般若鈔經 曇摩碑·竺佛念 共譯	卷第 2	1 卷	p. 174
淡函	道行般若經 支婁迦讖譯	卷第 4	1 帖	p. 174
鳥函	大寶積經 菩提流支譯	卷第 59	1 卷	p. 174
始函	同 經 菩提流支譯	卷第 91	1 卷	p. 174
讓函	大方等大集經 曇無讖譯	卷第 25	1 卷	p. 175
有函	同 經 曇無讖譯	卷第 49	1 卷	p. 175
章函	大方廣佛華嚴經 實叉難陀譯	卷第 32	1 卷	p. 176
黎函	同 經 實叉難陀譯	卷第 64	1 卷	p. 176
首函	同 經 實叉難陀譯	卷第 75-79	2 卷	p. 176
邈函	大般涅槃經 曇無讖譯	卷第 17	1 卷	p. 177
歸函	方廣大莊嚴經 地婆訶羅奉詔譯	卷第 8	1 卷	p. 177
駒函	悲華經 曇無讖譯	卷第 10	1 卷	p. 177
場函	合部金光明經 實貴合·曇無讖共譯	卷第 1	1 卷	p. 177
木函	佛說廣博嚴淨不退轉輪經 智嚴譯	卷第 4	1 卷	p. 178
鞠函	大莊嚴法門經 那連提耶舍譯	卷下	1 卷	p. 178
良函	無量門破魔陀羅尼經 功德直·玄暢共譯	單卷	1 卷	p. 182
良函	妙辟印幢陀羅尼經 實叉難陀奉制譯	單卷	1 卷	p. 182
摩函	大威德陀羅尼經 闍那崛多譯	卷第 17	1 卷	p. 184
使函	大方等陀羅尼經 法衆譯	卷第 3	1 卷	p. 184
器函	佛說法集經 菩提流支譯	卷第 1·4	2 卷	p. 185
作函	大智度論 鳩摩羅什譯	卷第 10	1 卷	p. 188
谷函	彌勒菩薩所問經論 菩提流支譯	卷第 2	1 卷	p. 188
谷函	寶髻經四法憂波提舍 毘目智仙譯	單卷	1 卷	p. 188
堂函	瑜伽師地論 彌勒菩薩說 玄奘奉詔譯	卷第 8	1 卷	p. 189
緣函	同 論 彌勒菩薩造 玄奘奉詔譯	卷 89	1 卷	p. 189
壁函	王法正理論 彌勒菩薩造 玄奘奉詔譯	單卷	1 卷	p. 189

※ 大藏目錄(高麗大藏經, 卷 39)에 수록된 面數임. 以下同

端函	大乘成業論 世親菩薩造 玄奘奉詔譯 單卷	1卷	p.190
則函	大乘廣五蘊論 地婆訶羅奉詔譯 單卷	1卷	p.191
則函	入大乘論 堅意菩薩造 道泰等譯 卷上	1卷	p.191
馨函	增壹阿含經 瞿曇僧伽提婆譯 卷第34	1卷	p.191
思函	舍頭諫太子二十八宿經 法護譯 單卷	1卷	p.194
基函	佛本行集經 闍那崛多譯 卷第53	1卷	p.195
無函	燈指因緣經 鳩摩羅什譯 單卷	1卷	p.195
益函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義淨譯 卷第44	1卷	p.197
體函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義淨譯 卷第33	1卷	p.197
和函	四分律藏初分 佛陀耶舍·竺佛念等譯 卷第8	1卷	p.197
入函	佛說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 失譯 單卷	1卷	p.198
入函	佛說優塞五戒相經 求那跋摩譯 單卷	1卷	p.198
母函	根本薩婆多部律攝 尊者勝友集 義淨奉制譯 卷第11	1卷	p.198
叔函	毘尼母經 失譯 卷第2	1卷	p.198
猶函	薩婆多毘尼毘婆沙 卷第1	1卷	p.198
比函	阿毘曇八捷度論 伽提婆·竺佛念共譯 卷第13·16	2卷	p.198
兒函	同 論 伽提婆·竺佛念共譯 卷第24·25	2卷	p.198
兄函	(阿毘達磨)法蘊足論 玄奘奉詔譯 卷第8·12	2卷	p.199
氣函	(阿毘達磨)識身足論 玄奘奉詔譯 卷第4	1卷	p.199
達函	(阿毘達磨)界身足論 玄奘奉詔譯 卷下	1卷	p.199
交函	(阿毘達磨)品類足論 玄奘奉詔譯 卷第16	1卷	p.199
交函	(衆事分)阿毘曇論 求那跋陀羅·菩提那舍共譯 卷第2	1卷	p.199
分函	阿毘曇毘婆沙論 五百羅漢譯 卷第12·14	2卷	p.199
慈函	阿毘達磨大毘婆沙論 玄奘奉詔譯 卷第15	1卷	p.199
義函	同 論 玄奘奉詔譯 卷第99	1卷	p.199
退函	同 論 玄奘奉詔譯 卷第118	1卷	p.199
靜函	同 論 玄奘奉詔譯 卷第172	1卷	p.199
都函	雜阿毘曇心論 僧伽跋摩等譯 卷第9	1卷	p.199
獸函	一百五十讚佛頌 義淨譯 單卷	1卷	p.199
仙函	經律異相 寶唱等集 卷第6	1卷	p.202

聚函	廣弘明集 道宣撰 卷第 21	1 卷	p. 203
英函	受用三水要行法 義淨撰 單卷	1 卷	p. 203
英函	比丘尼傳 寶唱撰 卷第 1	1 卷	p. 203
書函	法集要頌經 尊者法救集 天息災奉詔譯 卷第 2	1 卷	p. 204
書函	菩提行經 聖龍樹菩薩集頌 天息災奉詔譯 卷第 4	1 卷	p. 204
壁函	聖持世陀羅尼經 施護譯 單卷	1 卷	p. 204
壁函	十二緣生祥瑞經 施護譯 卷上	1 卷	p. 204
穀函	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教王經 法賢奉詔譯 卷第 6	1 卷	p. 208
車函	御製秘藏詮 宋太宗撰 卷第 6	1 卷	p. 208

한편 千惠鳳교수가 “更函에 있는 舊大藏目錄은 初雕時的 入藏錄임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고²⁹⁾ 推定한 것은 이와 같이 그 自身이 實査 鑑定한 初雕의 大藏經 現存本이 再雕의 大藏目錄의 函次와 著錄에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상과 같은 結果로 보면 初雕의 大藏目錄은 이제 거의 復元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初雕의 大藏目錄은 그 編纂年代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編纂年代는 두가지로 推定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 첫째는 初雕의 大藏目錄은 大藏經의 雕造가 제 1 차적으로 이루어진 顯宗年間 (1010-1031) 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理由는 宋나라의 智昇이 開元 18년 (730) 에 「開元釋教錄」을 편찬하고 이에 따라 開元 4年 (971) 에 宋板大藏經의 雕造가 開始되었고, 義天이 宣宗 7年 (1090) 에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한³⁰⁾ 다음 이에 따라 宣宗 8年 (1091) 에 이에 수록된 章疏의 雕造가 시작된³¹⁾ 慣例로 본다면 大藏經雕造가 시작되기 (顯宗 2年 (1011))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 目錄은 文獻爲主의 目錄이라기 보다는 佛經을 印出할 經板의 函의 體系的排列을 爲主로한 目錄으로서 大藏經의

29) *Ibid.* p. 71. 참조.

30)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p. 70. 76.

31)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 91.

雕造作業과 並行해서 편찬되었을 것이므로 늦어도 大藏經初雕가 完成된 宣宗 4年(1087)에는 完成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大藏目錄은 우리나라에서 現在까지 알려진 目錄으로서는 最古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 大藏經板의 排列體系

大藏目錄은 上中下の 3卷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맨 머리에 大藏經板의 排列을 위한 函次區分이 千字文順으로 매겨져 있고, 다음에 당해 函에 포함된 經典의 卷數와 그 印本에 所要되는 紙數 및 그 張數가 記入된 다음 行을 달리하여 經典名과 그 卷數 그리고 譯者名이 記入되어 있다.

이와 같은 著錄의 形式이나 方法으로 보아 大藏目錄은 經典의 體系的인 分類나 經典의 檢索을 위한 目錄이라기 보다는, 장차 大藏經의 印出에 있어서의 편의나 그 管理上의 편의를 위해서, 雕造된 經板의 函次排列을 위주로한 目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章에서는 먼저 大藏經板의 函次排列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大藏目錄은, 우선 예를 먼저 들면 예 1과 같이 「大般若波羅密多經六百卷」은 千字文順으로 排列된 大藏經板의 函次에서 “天”字부터 “奈”字에 이르는 60函속에 차례로 排列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그 函속에는 10卷 몫의 經板이 排列되어 있는 것이다. 예 2의 경우는 「放光般若經二十卷」이 菜와 重의 兩函에 차례로 排列되어 있고, 「摩訶般若經二十七卷」은 芥·叢·海의 3函에 排列되어 있다는 것이며, 예 4는 豆函에 「六度集經八卷」과 그 이하의 6經의 經板이 차례로 排列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入紙十三牒十一張”은 이들 函속에 들어있는 佛經을 印出하는데 필요한 종이의 數量을 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大藏目錄은 大藏經刻板이 소장된 函次記號를 앞세워 매겨서 주로 그 印出時에 函次에 따라 印出하기에 편리하고, 刻板管理에 편리하도록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經板의 函次表示는 “唐開元 18年(730)에 智昇이 「開元釋教錄」 20卷을 편찬하고, 經·律·論 및 名僧의 撰述 5048卷을 詮選하여 千字文으로서 函數를 정한 데 의거한 것인데, 후세에 모두 千字文의 函數를 그대로 모방하였다”³²⁾

32)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p.82. 참조.

茶重函入二十卷 入紙三十三牒七張

放光般若經二十卷

西晉三藏經錄又此經蘭 譯

芥蘆海函入二十七卷 入紙四十五牒五張

摩訶般若經二十七卷 亦名大品般若經

姚秦三藏鳩摩羅什共僧鑿譯

天地玄黃宇宙洪荒日月盈昃星辰宿
列張寒來暑往秋收冬藏閏餘成歲
律呂調陽雲騰致雨露結為霜金生
麗水玉出崑崗劍號巨關珠稱夜光
果珍李素函入六百卷

大般若波羅蜜多經六百卷

入紙七百四十八牒十卷

大唐三藏法師玄奘奉 詔譯

(例 1)

(例 2)

豆函入十四卷 入紙十三牒十一張

六度集經八卷

吳康僧朗所撰傳會

大子須大拏經一卷 西晉沙門竺佛朔譯

菩薩瓔珞經一卷 安世高所撰今附西秦經

佛說跋子經一卷 西秦沙門曇摩曇譯

大子慕瓔經一卷 西秦月人三藏法師護譯

九色鹿經一卷 吳月人休復所撰支謙譯

大子慕瓔經一卷 後漢安世三藏所撰高僧譯

淡函入十卷 入紙十二牒二張

道行般若經 後漢月支國三藏所撰支謙譯

鮮函入十卷 入紙十一牒九張

小品般若波羅蜜經 後秦龜茲國三藏所撰鳩摩羅什譯

(例 3)

(例 4)

고 하는데, 「開元釋教錄」이나 「續開元釋教錄」, 「貞元新定釋教目錄」에는 目錄上에는 表示되어 있지 않고, 「續貞元釋教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續貞元釋教錄」에서의 函次表示는 書名과 書誌의 記述事項을 모두 記入한 다음에 函次를 表示하고 右○部 ○卷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佛經의 分類排列은 그것이 書名의 音順排列이나 字劃順排列도 아니고, 經典의 體系順排列이긴 하나 그 體系가 目錄上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經典의 檢索을 위해서는 불편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최근 大藏經影印本을 發行할 때 그 缺點을 補完하기 위해서 그의 48卷의 末尾에 索引을 편찬하여 附錄한 것이다.

이 大藏經을 수용하고 있는 函數는 初雕大藏經의 경우 天函부터 更函까지 모두 571函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次項참조).

大藏經刻板의 規模는 再雕經板을 대상으로 해서 볼때 다음 그림과 같이 縱은 26.4cm, 橫은 약 72.6cm, 두께는 2.8~3.7cm이며, 兩端에는 그 刻板이 뒤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손잡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片木을 붙였는데 그 片木의 規格은 보통 길이가 26cm, 폭이 3.5cm, 두께가 3.5cm이다. 兩端片木의 四隅에는 그 毀損을 예방하기 위해서 洞板을 부착하고 있다. 刻板에 쓰인 用材는 濟州島, 莞島, 巨濟島, 鬱陵島 등지에서 生産된 厚朴木이라고 하며, 每板木의 重量은 일정치 않으나 대개는 2,700~3,800kg로 되어 있다고 한다.³³⁾

그리고 이 刻板 “全面에는 漆을 얇게 발랐다”고 하는데 肉眼으로는 識別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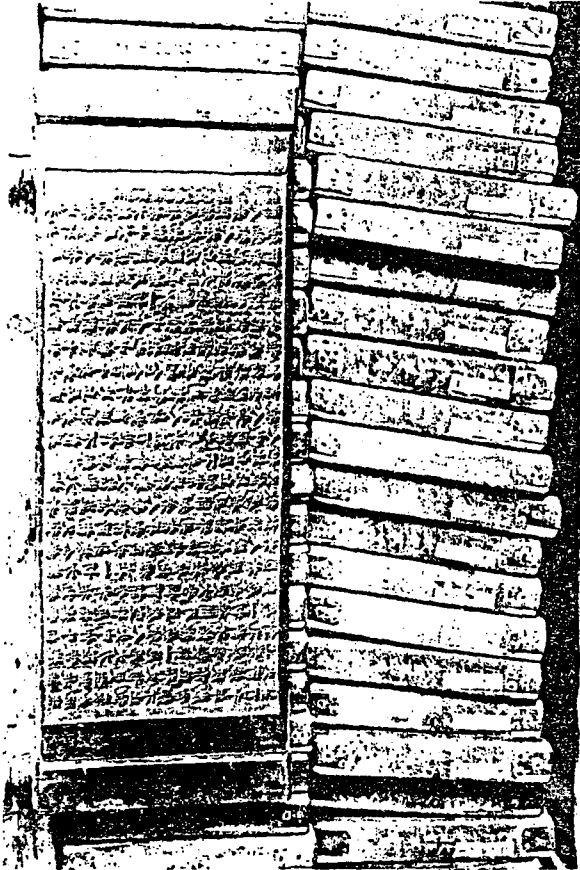
經板의 版面은 대개는 縱은 24.5cm, 橫은 약 52cm이며 上下에 界線이 있으나 罫線은 없다.(大藏目錄에 해당하는 經板은 예외) 1面에는 23行, 每1行 14字씩 이고(細字가 있는 경우는 예외) 每 글자의 크기는 보통 0.27cm이다. 刻字는 대부분 經板의 앞뒤 兩面에 陽刻으로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1面만 雕刻된 것도 있으며, 그 일단에는 細字로된 經名·卷次·張數 및 千字文의 函數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經板을 排列하여 保存하고 있는 函의 規模는 아래 그림에서 대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높이가 66cm, 옆길이가 189cm, 앞뒤 幅이

33)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p.82. 참조.

75 cm로서 마치 큰 書架처럼 10函이 두줄 5層으로 한틀로 짜여져서 이것은 函이라기 보다는 經板架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每函에는 아래 그림처럼 經數을 세워서 두줄로 排列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函에 經板이 최대한 106 개가 排列될 수 있다.



Ⅲ. 大藏經의 分類體系

大藏目錄은 上中下의 三卷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序文이나 凡例도 없고 經典을 어떤 順序나 方法으로 分類排列했는지 설명도 없다. 다만 맨 머리에 大藏經板의 排列을 위한 函次區分이 千字文順으로 명확히 매겨져 있고, 다음에 그 函에 포함된 卷數와 그 印本에 所要되는 紙數 및 그 張數가 記入된 다음 行을 달리하여 經典名과 그 卷數 그리고 譯者名이 記入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記述方式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佛經의 分類體系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高麗大藏經 影印時에 새로 편찬한 目錄³⁴⁾도 2卷 이상으로된 經典에 한하여 各卷別로 內容을 부여했을 뿐 그 “編次는(舊)大藏目錄(K, 1405)에 依據 函別(千字文順)로 影印하였으며, 補遺는 補遺目錄(K, 1514)에 依據하였다”³⁵⁾고 그 凡例에 밝혔을 뿐 分類體系에 대해서는 論及이 없다. 그리고 같은 冊에 포함된 「高麗大藏經解題」에서도 다른 經典에 대한 解題와는 달리 다만 “高麗大藏經의 目錄, 全 1498 部 6379 卷의 聖典을 千字文函에 收藏한 것을 目錄한 것이다.”³⁶⁾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解題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諸記錄은 이 大藏目錄이 宋나라의 智昇이 撰한 「開元釋教錄」과 圓照가 撰한 「貞元續開元釋教目錄」등과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示唆해 준다.

義天이 記述한 「寄日本諸法師求集教藏疏」에 : “우리나라에서 佛敎를 崇奉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智昇이 撰한 「開元釋教錄」과 圓照가 撰한 「貞元續開元釋教目錄」등의 兩本에 수록된 經律論 등과 宋에서 새로 번역한 經論 六千來卷을 모두 다 雕造를 끝마쳤다.”³⁷⁾

義天이 撰한 「新編諸宗教藏總錄」序에 “開元釋教錄」은 모두 20 卷으로 가장 精要한 目錄이다. 論評家들은 經法의 譜에서 智昇 [의

34)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6. v. 48.

35) *Ibid.* v. 48. p. 20.

36) *Ibid.* v. 48. p. 941. (K. 1405)

37) 義天. 大覺國師大集(影印本). 서울, 建國大學校 出版部, 1974. v. 14.

(本國崇奉佛敎日已久矣其開元釋教錄智昇所撰貞元續開元釋教錄圓照所撰兩本所收經律論等洎大宋新編經論總六千來卷並已雕鑿施行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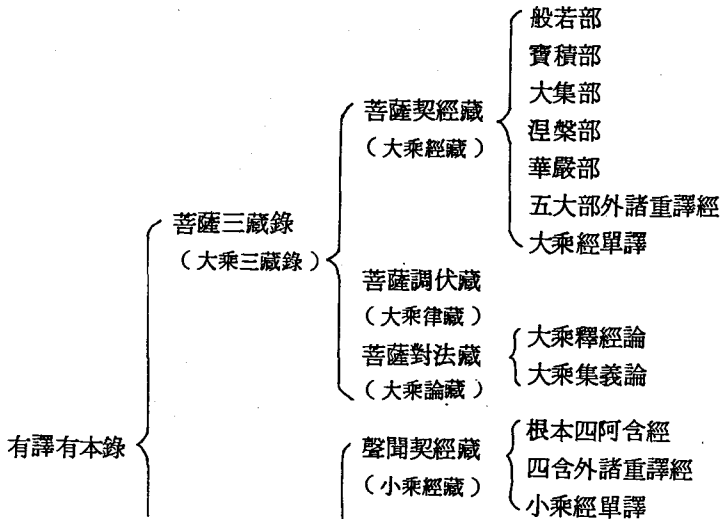
目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³⁸⁾ ..

이상과 같은 示唆에 따라 初雕의 大藏目錄을 「開元釋教錄」 등의 關係자료와 對比分析하여 그 分類體系를 밝히고자 한다.

A. 「開元釋教錄」과의 對比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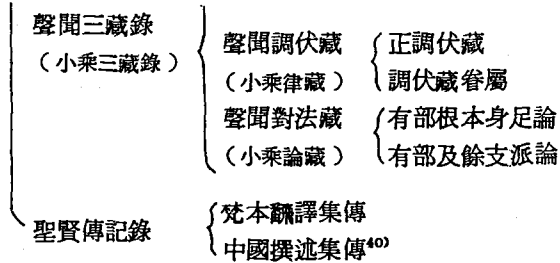
高麗大藏目錄과 智昇이 編纂한 「開元釋教錄」³⁹⁾을 실제로 對照하고 分析해 보면 「大藏目錄」의 分類 및 排列順序는 大藏經板의 天函부터 英函까지(高麗大藏經(影印本)第39卷 p.174~203)는 대체로 「開元釋教錄」의 別分乘藏錄中 有譯有本錄의 그것과 일치한다. 다만 部分的으로 약간의 添削과 順序變更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開元釋教錄」의 有譯有本錄을 보면 高麗大藏目錄의 分類 및 排列體系의 概要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開元釋教錄」中 有譯有本錄의 分類概要를 體系의으로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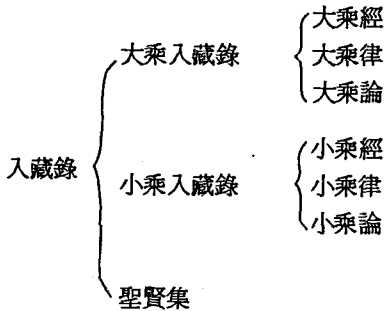


38)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三卷.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昭和. 8(1933), p.1.(開元釋教錄凡二十卷 最爲精要讀者以爲經法之譜無出昇之右矣)

39) 智昇撰. 開元釋教錄二十卷.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6. v.31. pp.965-1277. 所收.



위에서 “菩薩藏”이란 大乘佛敎의 敎理를 설명한 것⁴¹⁾이며, “聲聞藏”이란 小乘佛敎의 敎理를 설명한 것⁴²⁾이다. 그러므로 ‘菩薩三藏’이란 大乘佛敎의 經·律·論 三藏에 대한 古典的인 用語이며, ‘聲聞三藏’이란 小乘佛敎의 經·律·論 三藏에 대한 古典的인 用語라고 볼수 있다. 그리하여 開元錄 다음에 唐의 貞元 16年(800)에 편찬된 「貞元新定釋敎目錄」의 入藏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用語가 變用되고 있다.⁴³⁾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譯有本錄은 우선 제 1 단계로 大乘三藏, 小乘三藏, 聖賢傳記로 三大區分하고, 제 2 단계로 大乘의 經·律·論藏, 小乘의 經·律·論藏, 聖賢傳記는 梵本集傳과 中國(此方) 撰述集傳으로 分類한 것이다. 그리고 제 3 단계는 大乘의 經藏에서는 般若部, 寶積

40) 開元釋敎錄.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1. v.31. p.128.129. 참조

41) *Ibid.* v. 31. p. 1121 (菩薩藏者 大乘所詮之敎也)

42) *Ibid.* v. 31. p. 1155 (聲聞藏者 小乘所詮之敎也)

43) *Ibid.* v. 30. p. 471.497.507.

部, 大集部, 華嚴部, 涅槃部, 五大部外經, 大乘經單譯의 7가지로 細分하고, 大乘의 律藏에서는 細分하지 않고, 論藏에서는 大乘釋經論과 大乘集義論으로 兩分한 것이다. 小乘의 經藏에서는 根本四阿含經, 四舍外諸重譯經, 小乘經單譯으로 3分하고, 律藏에서는 正調伏藏과 調伏藏眷屬으로 兩分하였으며, 論藏에서는 有部根本身足論과 有部及餘支派論으로 兩分하였다.

이상과 같은 分類體系는 우선 大乘三藏과 小乘三藏을 기초로 하고 聖賢傳記는 副次的인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들어 要約해서 말한다면 三藏分類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分類體系는 初雕의 高麗大藏目錄에 있어서도 一切 동일하며, 다만 제 3 단계에서 細分된 經·律·論 以下の 排列順位에 다소의 變異가 있고, 몇가지 經典의 添削이 있을 뿐이다. 우선 添削의 狀況은 다음과 같다.

〈添加된 經典〉

- (伐) 「佛說般舟三昧經一卷」後漢月氏國三藏支婁迦讖譯
 (垂~首) 「大方廣佛華嚴經八十卷」(周本)唐于闐國三藏實叉難陀譯
 (大) 「大方等無想經六卷」北天竺三藏曇無讖譯
 (散) 「申日經一卷」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
 (傷) 「曼殊室利藏中校量數珠功德經一卷」沙門釋義淨奉詔譯

 (悲) 「五佛頂三昧陀羅尼經四卷」大唐三藏菩提流志譯
 (傅) 「大沙門白一羯磨法一卷」僧祐錄中失譯經今附宋錄
 (姑) 「毗婆娑律十卷」伽跋陀羅譯
 (右) 「宣律師感通錄一卷」

〈漏落된 經典〉

- (大集部) 「大方等大集日藏經十卷」隋天竺三藏佛連提耶舍譯
 (五大部外重譯經) 「大集月藏經十卷, 高齊天竺三藏佛連提耶舍譯
 「浴像功德經一卷」大唐三藏義淨譯
 (正調伏藏) 「四分雜羯磨一卷」曹魏天竺三藏康僧鎧譯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開元釋教錄」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初雕大藏目錄에서는 漏落된 經典이 4種 22卷이고, 前者에는 未收錄되었으나 後者에는 添加收錄되어 있는 經典이 9種 105卷이다. 이들 중 「大方廣佛華嚴經八十卷」은, 唐 貞元 16(800)년에 편찬된 「貞元新定

釋教目錄」에 수록되어 있음으로 이것은 다른 宋本과 더불어 일찌기 導入되어 初雕時에 入藏되었을 것이며, 특히 그 初雕本中 4卷(卷 32, 64, 75, 79)은 이미 千惠鳳교수가 實查鑑定한 바 있으므로⁴⁴⁾ 初雕入藏이 확실하다.

그리고 敢函中 「申日經一卷」 法護譯은 “開元錄을 살펴보면 法護譯中「月光童子經」이 있는데 역시 經名은 申日經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一經에 2名이 있을 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大藏目錄中 支諺譯中에「申日經一卷」이 있는데 이것은「月光童子經」과 同本異譯이다… 舊大藏經中에 支諺가 譯한「申日經」이모두 이 經의 支諺譯이니 틀림없이 法護라고 하는 이름만 잘못된 것이다. 그리하여 四譯을 갖추어 道理에 어두운 말을 가리고 來哲을 기다린다.”⁴⁵⁾ 고 한다. 이러한 校勘記를 보면 「申日經一卷」은 이미 初雕의 大藏目錄에 수록되어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머지 7種 24卷은 그후 南唐 保大 2(945)年에 恒安이 撰한 「續貞元釋教錄」⁴⁶⁾에도 수록되지 않은 佛經들이다.

여기에서 再考할 두가지 問題가 있다. 첫째는 이상에서 밝힌 「開元釋教錄」의 수록분 以外에 大藏目錄에 添加된 7種 24卷은 그것이 初雕時부터 添加收錄된 것이나, 아니면 再雕時에 編入된 것이나 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開元釋教錄」에 收錄되어 있는데 「大藏目錄」에서는 漏落되고 있는 經典 4種 22卷이 初雕時부터 漏落된 것이나, 아니면 初雕時에는 大藏經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散失되어 再雕時에 漏落된 것이나 하는 問題이다.

한편 I章에서 밝힌 바도 있거니와 「大藏校正別錄」에서 살펴보면 再雕時에 丹本에서 새로 編入된 7經 9卷 以外에 「初雕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던 經典中에도 再雕時에 契丹本도 함께 參考하여 校勘한 記錄이 여러 經典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44)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74. 참조.

45) *Ibid.*: v. 38, p.529(下), p.530(上) (敢函: 按開元錄法護譯中有月光童子經亦名中日經者自是一經有二名耳非別有中日經亦是法護譯者 藏中既有月光童子經爲法護譯斯已矣… 今以錄中有云支諺譯中有申日經一卷云與月光童子經 同本異譯… 今諸藏智無恐此經 卽是支諺之譯而誤安法護之名耳如是則 四譯覺具矣 胃陳譬言以俟來哲).

46) 續貞元釋教錄.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6. K.1399 惠函.

〈契丹本에 의거하여 校勘된 經典〉

- (服) 「須摩提經」法護譯本一卷, 羅什譯本一卷⁴⁷⁾
 (推) 「大集經三十卷」天竺三藏曇無讖譯⁴⁸⁾
 (王) 「普燿經八卷」法護譯⁴⁹⁾
 (必) 「須眞天子經四卷」法護譯⁵⁰⁾
 (羔) 「魔逆經一卷」法護譯⁵¹⁾
 (谷) 「大寶積經論四卷」菩提流志譯⁵²⁾
 (當) 「決定藏論三卷」眞諦譯⁵³⁾
 (履~清) 「中阿含經六十卷」罽賓三藏翟曇僧伽提婆譯⁵⁴⁾
 (松~流) 「雜阿含經五十卷」宋天竺三藏求那跋陀羅譯⁵⁵⁾
 (不息) 「別譯雜阿含經十六卷」⁵⁶⁾
 (澄) 「起世經十卷」隋天竺三藏闍那崛多譯⁵⁷⁾
 (取) 「起世因本經十卷」隋天竺三藏闍那崛多等譯⁵⁸⁾
 (暎) 「大樓炭經六卷」西晉沙門釋法炬共法立譯⁵⁹⁾
 (止) 「佛說頻毗娑羅詣佛供養經一卷」西晉沙門法炬譯⁶⁰⁾
 (若) 「四未曾有經一卷」西晉竺法護譯⁶¹⁾
 (籍) 「本事經七卷」三藏法師玄奘奉詔譯⁶²⁾

47) 守其等撰. 高麗國新羅大藏校正別錄.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6. v. 38. p. 513 (丹藏雖無流志譯而有法護羅什二譯)

48) *Ibid.* v. 38. p. 513. (下) (丹藏三十卷)

49) *Ibid.* v. 38. p. 518. (中) (今於國丹本)

50) *Ibid.* v. 38. p. 536. (下) (宋四卷丹三卷... 丹本有爲轉法...)

51) *Ibid.* v. 38. p. 534. (下) (國丹本雖始終無異)

52) *Ibid.* v. 38. p. 594. (下) (國丹二本迥異)

53) *Ibid.* v. 38. p. 607. (上. 中) (今檢國丹二藏宋本錯)

54) *Ibid.* v. 38. p. 615. (中) (今於丹藏經中得七寶經第一偈一百九十字爲卷初首)

55) *Ibid.* v. 38. p. 616. (下) (今去彼取此丹本經焉)

56) *Ibid.* v. 38. p. 626. (上. 中) (國宋本所無而丹本獨有者)

57) *Ibid.* v. 38. p. 631. (下) (丹藏則云闍那崛多譯)

58) *Ibid.* v. 38. p. 631. (下) (丹藏則云達摩笈多譯)

59) *Ibid.* v. 38. p. 632. (上) (宋丹藏本脫十五行文)

60) *Ibid.* p. 636. (中) (丹本大別... 今以丹藏爲眞本)

61) *Ibid.* p. 638. (下) (今檢之丹即是也... 去宋經而取丹本)

62) *Ibid.* p. 639. (下) (今此丹本十八段經始終成就)

- (攝以) 「十誦律六十一卷」三藏弗若多羅譯⁶³⁾
 (詠樂)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毗奈耶二十卷」三藏法師義淨譯⁶⁴⁾
 (隋) 「彌沙塞五分戒本一卷」宋翳賓三藏佛陀什等譯⁶⁵⁾
 (隋) 「摩訶僧祇比丘尼戒本一卷」東晉法顯共覺賢譯⁶⁶⁾
 (外) 「沙彌尼離戒文一卷」失譯附東晉錄⁶⁷⁾
 (傳) 「四分比丘尼羯磨一卷」毘分律女人出家法⁶⁸⁾
 (入) 「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一卷」失譯人名今附東晉錄⁶⁹⁾
 (諸) 「鼻奈耶十卷」姚祭涼州沙門竺佛念譯⁷⁰⁾
 (子~兒) 「阿比曇八捷度論三十卷」三藏法師玄奘奉詔譯⁷¹⁾
 (孔) 「發智論二十卷」三藏法師玄奘奉詔譯⁷²⁾
 (弟同) 「集異門足論二十卷」三藏法師玄奘奉詔譯⁷³⁾
 (仁~逸) 「阿毗達磨大毗婆沙論二百卷」三藏法師玄奘奉詔譯⁷⁴⁾
 (謂) 「分別功德論五卷」失譯人名附後漢錄⁷⁵⁾
 (視) 「菩薩本緣經二卷」吳月支擾娑塞支謙譯⁷⁶⁾
 (驚) 「雜寶藏經十卷」元魏西域三藏吉迦夜共曇曜譯⁷⁷⁾

63) *ibid.* v. 38, p. 647. (中. 下) (國本宋本並無者今依丹本 而足之)

64) *ibid.* p. 652. (上) (今依丹本足之)

65) *ibid.* p. 653. (上) (今以本律檢之此丹本乃正也…今取此丹本入藏)

66) *ibid.* p. 663. (中) (今取丹本對律校正入藏)

67) *ibid.* v. 38, p. 663. (中) (丹本即云沙彌尼雜戒文今檢正文)

68) *ibid.* v. 38, p. 663. (下) (丹本云宋求那跋摩譯…今檢丹本…跋摩所譯正本故取之入藏)

69) *ibid.* v. 38, p. 672. (上) (按文國本有三百六十七問丹本同)

70) *ibid.* v. 38, p. 678. (上) (國本與丹本皆有十卷…今取二本之足者入藏)

71) *ibid.* v. 38, p. 694. (下) (今疑國宋二本錯亂而重寫于茲耳今依丹藏刪正之)

72) *ibid.* v. 38, p. 695. (上) (國本丹本並有者)

73) *ibid.* v. 38, p. 695, 696. (中) (國本宋本並脫覆無記乃至便於諸愆心等凡三十五行之文今依丹本足之)

74) *ibid.* v. 38, p. 698. (上). p. 699. (下) (側函: 今檢國丹二本則宋本錯)(弗函: 國宋二本並錯重寫丹本中作四法)

75) *ibid.* v. 38, p. 701. (中) (謂函: 按此論丹藏為四卷開元錄云四卷)

76) *ibid.* v. 38, p. 701. (下), 702. (上) (觀函: 丹本有如我曾聞菩薩往昔…丹藏錯亂妄置于茲耳故今不取)

77) *ibid.* v. 38, p. 702. (上) (丹本有貧人以麩團施見獲報緣…丹本錯亂重寫于茲耳故今不取)

- (既) 「辨正論八卷」唐沙門釋法琳撰⁷⁸⁾
 (佐) 「菩提場所說一字頂輪王經五卷」天竺三藏不空譯⁷⁹⁾
 (扶傾)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二十卷」三藏沙門義淨譯⁸⁰⁾

이상과 같이 모두 34經 630卷인데 各經의 卷帙이 빠짐없이 갖추어졌었느냐의 如否는 알 수가 없다.

한편 經典의 分類體系에 있어서 細分된 類目內에서는 排列順位가 달라진 部分이 상당히 있는데 이를 일일이 밝힐 수는 없고, 다만 排列의 變異가 비교적 많은 部門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華嚴部(湯~羌函)	大乘經重單合譯(惟~岡函)
大乘經單譯(談~景函)	小乘經重單合譯(臨~安函)
小乘經單譯(定~竟函)	小乘律(學~猶函)

이와 같이 細分된 類目內에서 排列의 變異가 생긴 原因은 알 수 없다. 그러나 兩目錄에 文獻이 排列된 각각의 특징으로 보아 「開元錄」은 細分된 동일한 類目內에서는 譯經의 年代順으로 排列된 것으로 보이고, 大藏目錄에서는 譯經의 年代順을 고려하되 연관된 內容上의 體系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大藏目錄을 分析한 結果로 보면 高麗의 初雕大藏經中 天函에서 英函까지 480函分은 高麗 成宗 10年(991)에 北宋에서 導入된⁸¹⁾ 北宋의 開寶勅板大藏經 2,500卷을 주로 底本으로 하여 雕造한 것이며, 大藏目錄도 開元釋教錄中の 有譯有本錄(入藏錄)에 準해서 分類編纂된 것이다. 다만 이상에서 열거한 4種 22卷(대체로 同本異譯)이 漏落되었고, 9種 105卷이 追加編入되었는데 이들 중 2種 81卷은 이미 初雕大藏目錄에도 수록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7種 24卷은 初雕時부터 編入된 것인지 또는 再雕時에 編入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끝으로 또 두가지 檢討해 볼 問題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初雕의 大藏目錄中 天函부터 英函까지는 開元錄中の 有譯有本錄에 수록된 經典들을 거의 전부 그대로 수록하고 그 函次

78) *ibid.* v. 38, p. 715. (下) (丹本五十一行國本四十五行檢之有放足今加之)

79) *ibid.* v. 38, p. 716. (上) (今按丹本則國本錯…今依丹本進退正之)

80) *ibid.* v. 38, p. 721. (上) (今准國後本及丹本則有聽我出家)

81)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大東文化研究, 第11輯, p. 169.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p. 53 등 참조.

의 排列順이나 分類法도 거의 改變이 없이 받아 들였는데, 現在의 再雕大藏目錄에는 開元錄의 경우처럼 經典分類的 概要가 表示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疑問을 가지게 한다. 義天이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序에서 말했듯이 “「開元釋教錄」은… 가장 精要한 目錄으로서 論評家들은 經法의 譜에서 智昇〔의 目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⁸²⁾ 고 할 만큼 훌륭한 目錄이지만 이 目錄의 分類體系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限「開元錄」처럼 詳細한 註記는 달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 1차의 初雕分에 限해서는 그에 準하는 分類的 概要를 表示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만약 經典의 類別表示를 했다면 開元錄의 경우처럼 다음과 같이 表示되었을 것이다.

- | | |
|------------------------------|-------------------------|
| 1. 天函의 앞에 ‘般若部’ | (p. 174) ⁸³⁾ |
| 2. 翔函의 앞에 ‘寶積部’ | (p. 174) |
| 3. 推函의 앞에 ‘大集部’ | (p. 175) |
| 4. 湯函의 앞에 ‘華嚴部’ | (p. 176) |
| 5. 遐函의 앞에 ‘涅槃部’ | (p. 177) |
| 6. 歸函의 앞에 ‘五大部外重譯經’ | (p. 177) |
| 7. 惟函의 앞에 ‘菩薩三藏錄’ ‘大乘經重單合譯’ | (p. 179) |
| 8. 談函의 앞에 ‘大乘經單譯’ | (p. 184) |
| 9. 行函의 앞에 ‘菩薩調伏藏’ | (p. 187) |
| 10. 作函의 앞에 ‘菩薩對法藏’ ‘大乘釋經論’ | (p. 188) |
| 11. 堂函의 앞에 ‘大乘集義論’ | (p. 189) |
| 12. 臨函의 앞에 ‘聲聞契經藏’ ‘小乘經重單合譯’ | (p. 191) |
| 13. 定函의 앞에 ‘小乘經單譯’ | (p. 195) |
| 14. 學函의 앞에 ‘聲聞調伏藏’ | (p. 197) |
| 15. 子函의 앞에 ‘聲聞對法藏’ | (p. 198) |
| 16. 據函의 앞에 ‘聖賢傳記錄’ ‘梵本翻譯集傳’ | (p. 200) |
| 17. 彩函의 앞에 ‘中國撰述集傳’ | (p. 203) |

그리고 杜函以下 楚函까지의 제 2차의 初雕分은 그 후에 追加된 經典으로서 처음의 分類體系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그 體系를 벗어나고 있거니와, 再雕時에는 經典이 霸函부터 洞函까지 68函分이나

82) 前註 38) 참조.

83) 이하 大藏目錄. 高麗大藏經(影印本), v. 39의 당해 面數임.

더 追加되므로 더욱 本來의 傳統的인 經典分類體系를 유지할 수가 없으므로 大藏目錄을 再編할 당시에 天函부터 英函까지에 있었던 經典分類의 概要表示를 削除한 것으로 推定된다.

둘째는 現在の 再雕大藏目錄은 上·中·下 3卷으로 編成되어 있는데 上卷은 天函부터 空函까지, 中卷은 谷函부터 設函까지, 下卷은 席函부터 更函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卷次 매김은 再雕時에 이와 같이 改編된 것으로 指定된다. 그 理由는 첫째, 이러한 卷次 매김은 傳統的인 體系에서 벗어난 것이며, 현재의 卷次 매김은 各卷에 수록된 著錄의 量을 均配한 느낌을 주고 있고, 둘째는 大藏目錄의 分類體系나 函次排列이 모두 開元錄의 體制에 따르고 있는데 開元錄의 有譯有本錄을 보면 卷第一은 菩薩三藏錄, 卷第二는 聲聞三藏錄, 卷第三은 聖賢傳記錄⁸⁴⁾으로 卷次가 編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初雕大藏目錄의 卷次는, 第一卷은 天函부터 命函까지(菩薩三藏錄), 第二卷은 臨函부터 謂函까지(聲聞三藏錄), 第三卷은 據函부터 更函까지(聖賢傳記錄)로 編成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B. 杜函 — 輕函의 經典과 契丹本

前項에서 「開元釋教錄」과 對照分析한 다음의 杜函부터 輕函까지(40函分)는 ‘宋新譯經論分에 해당할 것’⁸⁵⁾이라고 推定된 바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開元釋教錄」을 비롯해서 貞元 10年(794)에 圓照가 편찬한 「續開元釋教錄」이나 貞元 16年(800)에 편찬된 「貞元新定釋教錄」, 保大 2年(945)에 恒安이撰한 「續貞元釋教錄」 등에 수록된 書目과 실제로 일일이 對照해 보아도 동일한 書目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宋新譯經論分은 末尾의 濟函부터 密函까지(15函分)에 수록되어 있다.⁸⁶⁾

따라서 杜函부터 輕函까지는 契丹本을 底本으로한 佛典일 가능성이 많다. 高麗朝에 佛典이 비교적 大規模로 導入된 것이 세 차례인데, 그

84) 開元釋教錄.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6. v. 31. p. 1121 참조.

85) 千惠胤.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 67 (本文中에 “數”函까지라고 했는데, 이 數字는 數字나 輕字의 誤植일 것이다. 註 49도 참조.)

86) 다음項 참조.

첫 번째는 成宗 10年(991)에 北宋의 開寶勅板이 導入되었고,⁸⁷⁾ 두 번째는 文宗 17年(1063)에 契丹本이 導入되었으며,⁸⁸⁾ 세 번째는 文宗 37年(1083)에 宋板新譯經論이 導入되었다.⁸⁹⁾ 千惠鳳 교수의 말대로 “顯宗 朝에서 大藏經이 完刻되지 못했기 때문에 文宗 7年에 一部の 完帙을 마련할 때 未刻分을 書寫補充했다고 보고⁹⁰⁾ 文宗 17年(1063)에 契丹藏 이 將來된 다음 “文宗朝에 大藏經의 雕造가 더욱 活氣를 띠어… 丹本을 적지 않게 底本으로 삼고 開板했던 점으로 본다면⁹¹⁾ 前項에서 對照分析된 바와 같이 「開元釋教錄」에 수록된 宋本의 거의 全部가 完刻된 다음에 契丹本大藏經을 雕造했다고 보는 것이 時間的인 觀點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千惠鳳교수도 丹本이 “적지 않은 量이 文宗때 開板되어 初雕本에 編入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⁹²⁾ 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部分에 수록된 것인지는 論及이 없으나 아마도 大藏目錄에 수록된 杜函부터 輕函까지의 40函 376卷은 契丹本을 底本으로 雕造된 經典인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高麗 元宗朝와 忠烈王때(1260~1308)의 僧侶인 宓菴이 쓴 「丹本大藏慶讚疏」에 의하면, “생각컨대 이 大寶가 異邦으로부터 들어왔지만 部秩이 簡輕하여 函은 200에 넘지 않고, 종이가 얇고 글자가 뾰뾰하여 冊이 1000卷은 못되지만 자못 人巧로서는 이를 수 없고, 神巧를 빌려서 만들어진 것 같다.”⁹³⁾ 고 했으니 그가 말한 “200函 미만”이나 ‘千卷미만’과는 그 函·卷數의 差異가 많은 것이다. 그가 말한 것은 慶讚疏로서 실제적인 函·卷數보다는 誇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誇張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契丹本大藏經이 200函미만 千卷미만이라면 그 全部가 契丹人의 譯

87)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 60.

88) *ibid.* p. 64.

89) *ibid.* p. 65. 66.

90) *ibid.* p. 64.

91) *Loc. cit.*

92) *ibid.* p. 65.

93) 宓菴. 丹本大藏慶讚疏. 東文選, 卷 112. (念茲大寶來自異邦秩簡部輕函未盈於二百紙薄字密冊不滿於一千殆非人巧所成似借神巧而就)

經이 아니고 契丹에서 雕造했을 뿐이지 거의 태반이 先代의 漢·唐·晉·宋 등의 學僧들의 譯經이 될 것이므로 契丹板本中에는 單譯本도 많겠지만 北宋의 開寶勸板本과 重複이 되는 同本同譯의 佛典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高麗大藏經의 雕造時에는 당연히 同本同譯의 佛典은 除外하고 重複되지 않는 것에 限해서 雕造했을 것이다.

Ⅰ章에서 밝힌 바와 같이 再雕時에 天函에서부터 英函까지에 契丹本이 編入된 根據가 확실한 것이 7經 9卷이고(Ⅰ章 p.참조) 高麗大藏經 再雕時에 契丹本을 참고로 하여 校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 모두 34經 630卷(A項참조)이므로 그것만도 도합 41經 639卷이다. 또한 筆者는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趙明基博士가 소장하고 있는 「大方廣佛華嚴經」佛馱跋陀羅譯 卷第三十一·零卷은 「大藏目錄」의 湯函부터 道函까지의 5函(K.79)에 수록된 「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註에 “晉本”으로 明示)과 同本同譯이다. 이와 같이 追跡해 보면 앞에서 밝힌 376卷과 위에서 말한 639卷 그리고 華嚴經 60卷을 합하면 모두 1071卷이나 된다. 이와 같이 계산한다면 宥菴이 말한 1000卷을 훨씬 上廻하는데 丹本은 文宗 17年(1063) 이후 肅宗 4年(1099)과 睿宗 2年(1107)⁹⁴⁾에도 들어 왔으니 高麗大藏經의 再雕 이전에 導入된 것이 1000卷은 훨씬 上廻할 것이다.

다만 이 契丹本에 대한 書目部分은 「大藏目錄」에 수록된 것 이외에 이에 對應되는 契丹本目錄이 없고, 再雕時에 校勘한 內容을 記錄한 「校正別錄」에도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記錄이 없기 때문에 確認할 수 없을 뿐이다.

C. 「續開元釋教錄」과의 對比分析

前A項에서 智昇의 「開元釋教錄」과 「大藏目錄」에 수록된 書目과를 對照分析한 바 「大藏目錄」중 天函부터 英函까지는 經典의 排列順序까지도 거의 일치함을 確認하였으므로, 그 다음의 杜函以下の 書目を 「續開元釋教錄」과 일일이 對照分析한 바 「大藏目錄」의 末尾에 가까운 部分, 즉 磻函부터 合函까지(모두 20函)部分이 또한 內容上的 添削도

94)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64.65.

없이 그 部數나 卷數까지도 모두 일치함을 確認하였다. 다만 部分的으로 排列順序에 있어서 약간의 變異가 있을 뿐이다.

한편 이상의 部分은 「續貞元釋教錄」⁹⁵⁾과도 그 排列順序마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다만 「續開元釋教錄」은 그 末尾에 43種의 章疏가 追加收錄되어 있고, 「續貞元釋教錄」에는 이 章疏들이 제외된 反面에 貞元 15年에 編入된 新譯經論들이 追加收錄되어 있다. 이 追加收錄된 新譯經論은 다음과 같다.

〈宋貞元新譯經論〉

- 「新華嚴經論四十卷」 長者李通玄撰
- 「大方廣佛華嚴經四十卷」 三藏般若金剛譯
- 「授菩提心式儀一卷」 華嚴入法界品
- 「大乘緣生論一卷」 聖者壽楞伽造
- 「金剛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論一卷」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二十卷」 三藏沙門義淨譯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二十卷」 三藏沙門義淨譯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出家四卷」 同譯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安居事一卷」 同譯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隨意事一卷」 同譯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受革事二卷」 同譯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病耻那事一卷」 同譯
- 「續開元釋教錄三錄」 西明寺沙門圓照撰
- 「新定貞元釋教錄三十卷」 西明寺沙門圓照撰
- 「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
- 「大佛名經十八卷」
- 「法琳別傳三卷」 彥棕集
- 「大唐續貞元釋教錄一卷」 沙門恒安撰

이상과 같이 18經 217卷중에서 다음의 「授菩提心式儀一卷」 「大乘緣生論一卷」 「金剛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論一卷」만을 제외하

95) 「續貞元釋教錄一卷」(原名: 大唐保大乙己歲續貞元釋教錄)은 南唐 保大 2年(A.D. 945)에 恒安이 撰한 것이다.

고는 「大藏目錄」에도 策函부터 銘函까지(「大方廣佛華嚴經四十卷」, 「新華嚴經論四十卷」)(8函分), 그리고 濟函부터 密函까지(15函分)에 수록되어 있다.⁹⁶⁾

그리고 「大藏目錄」에는 「續貞元釋教錄」에서의 收錄分 이외에 그 末尾의 勿多士寔函에 「大般涅槃經三十六卷」, 寧晉楚函에 「佛名經三十卷」, 更函에 「大藏目錄三卷」이 追加收錄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對照分析한 결과에서 보면 義天이 「寄日本諸法師求集教藏疏」에서 말한 ‘大宋新翻經論’(II章 참조)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續貞元釋教錄」에 수록된 追加分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중에 大乘律論中の 3部3卷만이 누락된 것이다. 그리고 追加된 佛典중에는 「續開元釋教錄三卷」, 「新定貞元釋教錄三十卷」 및 「續貞元釋教錄一卷」 등의 目錄類도 그 末尾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文宗 37年에 導入된 佛典은 위에서 말한 3部3卷만을 제외하고 「續貞元釋教錄」에 수록된 全帙이 될 것이다.

한편 이 「續開元釋教錄」과 「續貞元釋教錄」은 「開元釋教錄」의 追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수록된 文獻의 數量이나 主題의 범위도 좁기 때문에 그 分類體系도 간단한 바, 다음과 같다.

大乘經及念誦法
大乘律
大乘論
小乘律
目錄類
聖賢傳集

따라서 「大藏目錄」중의 杜函以下の 經典의 分類體系는 A項에서 논급한 體系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千惠鳳교수는 「校正別錄」의 끝 函次가 楚函으로 그치고, 바로 그 다음의 更函에 「大藏目錄」이 編入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初雕本의 函次는 多分히 天函부터 楚函까지의 570函이었던 것으로

96) 再雕의 「大藏目錄」에서 廻漢函과 俊乂密函의 經典이 改編入된 것은 本考 I章 참조.

觀虛空藏菩薩經一卷	虛空藏菩薩神呪經一卷	虛空藏菩薩經一卷	虛空經菩薩經二卷	菩薩念佛三昧經五卷	弔函入十卷
<small>集經拾遺菩薩經左經</small>	<small>宋劉常三藏書摩訶書</small>	<small>北齊劉常三藏佛說經書</small>	<small>隋天竺三藏闍維多</small>	<small>宋天竺三藏迦提立</small>	<small>入紙十三牒</small>
同譯	譯	譯	譯	譯	
					女暮貞函入三十卷
					<small>入紙三十七牒十二張</small>
					不空罽索經三十卷
					<small>大唐天竺三藏菩提梵支</small>
					譯
					大般涅槃經二卷
					<small>大唐南天竺波流沙門若那跋摩</small>
					譯
					大般泥洹經六卷
					<small>東晉平陽沙門法顯</small>
					譯
					率函入八卷
					<small>入紙十二牒十八張</small>
					大般涅槃經四十卷
					<small>北凉天竺三藏曇無讖</small>
					譯
					遐迹壹體函入四十卷
					<small>入紙五十三牒十九張</small>

여겨진다.⁹⁷⁾ 고 했는데 「續貞元釋教錄」에는 그 末尾에 「續貞元釋教錄」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 예로 보면 更函의 「大藏目錄三卷」도 初雕大藏經의 末尾函次인 更函속에 이미 編入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書誌的 記述法

「大藏目錄」의 書誌的 記述法은 다음의 예와 같이 ①經典名을 앞세워 記入하고, ②이어서 그 卷數를 적고, ③혹 註記가 있을 경우는 註를 記入하고, ④譯者의 國名 혹은 地位와 譯者名(주로 法名) 혹은 撰者名을 記入하고 있다.

①여기에서 經典名(書名)은 「大般若波羅密多經」의 경우와 같이 異名이 없이 佛經原譯本에 쓰여진 그대로 記入되는 경우도 있으나, 「放光般若經」의 경우와 같이 「開元釋教錄」에서는 「放光般若波羅密經」으로 되어 있고, 異名으로 「放光般若波羅密多經」, 「放光摩訶般若經」,

97)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 71.

「摩訶般若放光經」, 「光般若波羅密經」, 略名으로는 「放光經」등 譯者에 따라 書名을 서로 달리하거나 外題와 內題를 달리하고, 目錄編纂者에 따라 或者는 外題를 택하고, 或者는 內題를 택하고, 或者는 經典에 쓰여진 대로 記錄하고, 或者는 縮略된 書名을 사용하여 經典名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識別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예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므로 우선 「開元釋教錄」과 「大藏目錄」을 對比해서 그 일반적인 傾向만을 말하면, 「開元釋教錄」의 경우는 原譯書名에서 필요이상의 修飾語만 생략하고 原譯書名에 가까운 書名을 쓰고 있고, 「大藏目錄」에서는 비교적 略書名에 거의 가까운 書名을 쓰고 있는 傾向이다.

그러나 이것은 「開元釋教錄」과 對比되는 部分 즉 天函부터 英函까지에 限한 것이고, 다음의 契丹本을 底本으로 板刻한 部分과 「續貞元釋教錄」에 對比되는 部分 즉 杜函부터 楚函까지는 비교적 經典名의 縮略이 적은 傾向이다.

② 卷數는 句讀點이나 띄어쓰기도 없이 經典名의 글자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받드시 經典名에 이어서 表示되고 있어서 그것이 書名에 가까운 구실을 하고 있으며, 동일한 經典名의 佛經을 식별하는데 第一次의 要素가 되고 있다.

한편 每卷의 分量⁹⁸⁾은 雕造된 經板單位로 본다면 大藏經 전반에 걸친 平均值로 계산해서 卷當 30面 즉 兩面刻板 15枚分에 해당한다.

③ 註記는 初雕分에 해당하는 天函부터 楚函까지에 수록된 1380餘種의 經典中 약 120種(0.9%)의 經典에 註記가 있다. 이들중 「大方廣佛華嚴經」의 경우처럼 “晉本” “周本”과 같이 板本表示를 해 준 註가 2件, 伐函의 「般若三昧經」의 “一名十方現在前立定經”과 같이 異名을 밝힌 註가 6件, 養函의 「彌勒來時經」의 “失譯人名附東晉錄”과 같이 譯者未詳이나 그 出典을 밝힌 註가 110餘件으로 이것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또한 동일한 譯者未詳이나 出典을 밝히는 註記가 다음 經典에도 연속되는 경우는 “同前”이라는 말로 省略하고 있다.

98) 卷數는 書誌의인 冊數로서 일단 매겨 놓으면 一定不變性を 지니고 있다고 한다(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 70. 참조)

한편 「開元釋教錄」에서의 註記는 詳細한데 비하여 「大藏目錄」에서의 註記는 너무나 간략하다. 특히 杜函부터 輕函까지의 契丹本の 경우와, 策函부터 楚函까지의 「續貞元釋教錄」의 수록분에는 註記가 거의 없고, 譯者未詳의 經典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④ 東洋의 佛經은 거의 譯經이지만 撰·集·錄·作도 있는데 이들 譯·撰 등의 表示는 모두 經典名의 글씨보다 細子로 表示되고 있다. 그 內容과 方法은 앞에 例示한 率函의 「大槃泥洹經」下의 “東晉平陽沙門法顯 譯”에서 “東晉”은 國名이고, “平陽沙門”은 法門의 佳號 또는 職位이며, “法顯”은 法名이다. 역시 같은 率函의 「大般涅槃經」下의 “大唐南海波陵國沙門若那跋陀羅 譯”에서 大唐”은 國名이고, “南海波陵國沙門”은 法門의 佳號 또는 職位이며, “若那跋陀羅”는 印度系의 法名이다. 이와 같이 譯者名表示는 반드시 그의 國名, 佳號나 職位, 그리고 譯者名 또는 撰者名을 記入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 譯者의 佛經이 연속해서 열거될 경우는 “同譯”이라고 낱말로 息略하고 있다.

結 論

이상에서 밝힌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第I章에서 밝힌 바와 같이 初雕의 高麗大藏目錄은 現存하지 않고 있으나 現存하는 再雕의 大藏目錄을 바탕으로 하고 再雕時에 守其 등이 校勘한 內容을 記錄한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에 의거하여 初雕의 大藏目錄의 概要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復元할 수도 있다. 또한 初雕大藏目錄은 늦어도 初雕大藏經이 完成된 高麗 宣宗 4年(1087)에 編纂完了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現在까지 알려진 目錄으로서는 最古의 것이다.

2. 第II章에서 밝힌 바와 같이 大藏目錄에 있어서 經典의 分類 및 排列은 經名의 音順排列 또는 字劃順排列도 아니고, 대체로 經典의 體系順排列이긴 하나 그 體系가 目錄上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檢索을 위해서는 불편하다. 따라서 大藏目錄은 經典의 體系的인 分類나 經典의 檢索을 위한 目錄이라기 보다는 大藏經의 印出에 있어서의 편

의나 그 管理上의 편의를 위해서 經板의 函次排列을 위주로한 目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函이란 經板 약 106 枚를 두줄로 排列할 수 있는 세로 66 cm 가로 89 cm 폭 75 cm의 經板架이다.

3. 第Ⅲ章에서 밝힌 바와 같이 大藏目錄의 分類法은 第1次의 初雕分에 限해서는 開元釋教錄의 分類法에 따라 제1 단계는 大乘三藏錄, 小乘三藏錄, 聖賢傳記錄으로 3 大區分하고, 제2 단계로 大乘三藏錄은 大乘經藏, 大乘律藏, 大乘論藏으로 分類하고, 小乘三藏錄은 小乘經藏, 小乘律藏, 小乘論藏으로 分類하고, 聖賢傳記錄은 梵本翻譯集傳과 中國撰述集傳으로 兩分하였다. 제3 단계는 大乘經藏은 般若部, 寶積部, 大集部, 華嚴部, 涅槃部, 五大部外諸重譯經, 大乘經單譯으로 細分하고, 大乘論藏은 大乘釋經論과 大乘集義論으로 兩分하였다. 小乘經藏은 根本四阿含經, 四舍外諸重譯經, 小乘經單譯으로 3 分하고, 小乘律藏은 正調伏藏과 調伏藏眷屬으로 兩分하였으며, 小乘論藏은 有部根本身足論과 有部及餘支派論으로 兩分하였다. 이와 같이 大藏目錄은 大乘三藏錄과 小乘三藏錄을 기본으로 하여 展開하고 聖賢傳記는 副次的인 것이기 때문에 三藏分類法을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大藏目錄中 제1차의 初雕分(天函부터 英函까지)은 주로 「開元釋教錄」에 수록된 北宋開寶勅板大藏經인 바 「開元釋教錄」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大藏目錄」에서는 漏落된 經典이 4種 22 卷이고 前者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後者에 添加된 經典이 7種 24 卷이다. 그러나 단 이러한 漏落과 添加가 初雕時에 이루어진 것이나 아니면 再雕時에 이루어진 것이나 하는 점은 不明하다.

5. Ⅲ章A項에서 밝힌 바와 같이 初雕의 大藏目錄에는 開元錄의 경우처럼 해당부분에 分類의 大綱을 表示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卷次매김도 再雕의 大藏目錄과는 달리 第一卷은 天函부터 命函까지(大乘三藏錄), 第二卷은 臨函부터 涓函까지(小乘三藏錄), 第三卷은 據函부터 更函까지(聖賢傳記錄)로 編成되었을 것이다.

6. 大藏目錄의 杜函부터 輕函까지(40 函分 376 卷)는 契丹本을 底本으로한 經典들이다. 契丹本은 기타에도 天函부터 英函까지에 수록된

宋板本の 經典과 同本同譯으로 확인된 것도 639 卷이므로 宓菴이 말한 契丹本 1000 卷과도 부합된다.

7. 大藏目錄중 備函부터 密函까지(36函)는 「續貞元釋教錄」에 수록된 宋板本으로서 다만 이들중 3部 3卷만이 瀟落되고 기타는 排列順序마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勿函부터 更函까지(8函)에는 大般涅槃經三十六卷, 佛名經三十卷, 大藏目錄三卷이 追加되었다.

8. 書誌의 記述法은 經典名을 앞세워 記入하고, 이어서 그 卷數를 적고, 혹 註記가 있을 경우는 註를 記入하고, 譯者의 國名 혹은 地位와 譯者名을 기입하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經典名(書名)의 記入에 있어서 經典의 原譯本에 쓰여진 그대로 記入된 경우도 있으나, 譯者에 따라 經典名을 서로 달리하거나 外題와 內題를 달리한 경우가 있고, 目錄編纂者에 따라 或者는 外題를 택하고 或者는 內題를 택한 경우가 있으며, 或者는 經典에 쓰여진 대로 記錄하는가 하면 或者는 縮略된 經典名을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識別이 매우 어렵다.

A Study of the system of Dae-Jang-Mock-Lock, a Buddhist Catalog of the Koryo Dynasty

by Zung Pil M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system, the original texts, and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Dae-Jang-Mock-Lock.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

1. The first carving of Dae-Jang-Mock-Lock was assumed to be completed at latest by 1087 (King Sun-Jong 4, Koryo) when the first carving of Dae-Jang-Kyong,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 was finished. Hence, Dae-Jang-Mock-Lock is safely said to be the oldest catalog in Korea.
2. The major function of Dae-Jang-Mock-Lock was to facilitate the job of printing, managing, or arranging the Sutra tablets, rather than to serve as its references.
3. Dae-Jang-Mock-Lock was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ae-Woon-Suck-Kyo-Lock, a Chinese Buddhist catalog. This system classified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 into the three categories of "Mahāyāna Tripiṭaka", "Hīnayanā Tripiṭaka", and "Collected Biographies of Saṃgha", at the first gradation. And then the Mahāyāna Tripiṭaka was divided into the three categories of "Mahāyāna Sūtra", "Mahāyāna Upaśakṣa", and "Mahāyāna Upadeśa", at the second gradation. In the same manner the "Hīnayanā Tripiṭaka" was divided into "Hīnayanā Sūtra", "Hīnayanā Upaśakṣa", and "Hīnayanā Upadeśa". The "Collected Biographies of Saṃgha" was divided into Brahman Saṃgha and Chinese Saṃgha. For this reason we can name this main classification system as a Tripiṭaka Classification.

4. The first carving tablets of the Buddhist Sutra from Choen Shelf (天函) to Young Shelf (英函) were the same Sutra that were included in Gae-Woen-Suck-Kyo-Lock (開元釋教錄), except those 4 omitted sutras of 22 volumes. But the other 7 sutras of 24 volumes were included as an extra addition in "Dae-Jang-Mock-Lock."
5. The 40 shelves and 376 volumes of Buddhist Sutra from the Doo Shelf (杜函) to the Kyong Shelf (輕函) in Dae-Jang-Mock-Lock were copied from the texts of Guran Edition (契丹本)
6. The 36 shelves of Buddhist Sutras from the Bun shelf (磻函) to the Mil shelf (密函) in Dae-Jang-Mock-Lock were the same as those included in Sock-Jung-Woen-Suck-Kyo-Lock (續貞元釋教錄), except the 3 omitted sutras.